

## 멕시코 대통령 선거 2018

작성 기준 년월일: 2018.07.03 일

### 차례

- I. 머리말
- II. 주요 대통령 입후보 정치 배경 및 이력 (履歷)
- III. 주요 대통령 입후보 선거 공약
- IV. 결과 및 승리 요인 분석
- V. 전망

### I. 머리말

2018 년 4 월 30 일 멕시코 중앙 선관위 (INE)에 의하면, 대략 1 억 2 천만명 해당하는 인구 중, 투표를 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 신청자 포함, 유권자는 총 89,332,031 명 (남성 48%, 여성 52%)으로 공포하고 있으며, 젊은 유권자 층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에서 40대 중순까지 투표 인구는 55.93% 해당, 젊은 유권자들 선택이 2018년 대통령 선거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었다.

젊은 유권자들은 경제 전문 일간지 El Economista 6월 26일 신문에 의하면 Twitter 상, 선거 관련 용어 검색에 있어서, 우선 순위로 부패, 경제, 안전, 미국 - 멕시코 관계 및 교육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간접적 표명하고 있는데, 한국 대비 상당히 젊은 유권자 층을 형성하고 있는 멕시코 투표권자들이 이후 6년을 책임질 대통령을 누굴 선택할 지 참으로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 사전 선거 운동 기간: 2017.12.14 ~ 2018.02.11
- 선거 운동 기간: 2018.03.30 ~ 2018.06.27 일
- 선거: 2018.07.01

상기와 같은 선거 스케줄 토대, 세계적으로 젊은 지도자들이 선출되는 유행 (?) 및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치 경제적 충돌 시기를 맞이하여 2018년 7월 1일

매 6 년 마다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 128 명 (64 명 직접 선거, 32 명 비례 대표) 연방 상원 의원 선거, 3 년마다 실시되는 500 명 (300 명, 직접 선거, 200 명 비례 대표) 연방 하원 의원 선거가 연방 차원에서 예고되어있다.

지방 차원에서 보았을 때, 멕시코 시티 경우, 멕시코 시티 시장 및 66 명 하원 의원 선거, 16 개 구청장 선거, 주지사 경우, 치아파스, 과나후아토, 할리스코, 모렐로스, 뿌에블라, 타바스코, 유카탄, 베라크루스 포함, 총 2,818 명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을 뽑는 선거가 예정되어있다.

상기 서술된 공무원 수 토대, 멕시코 역사상 제일 많은 공무원들을 뽑는 선거로 기록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2018 년 7 월 선거는 다른 부분에서도 멕시코 역사에 기록될 세가지 추가 사항이 있는데, 먼저, 연임(連任) 관련 시행 착오 역사를 통해 검증되어 1933 년 연방 헌법 (CPEUM) 명문화된 연임 금지 조항은, 84 년이 흐른 2014 년 (당시까지, 연임 금지된 라틴 아메리카 국가는 멕시코, 에쿠아도르, 코스타리카) 동법 59 조, 115 조 및 116 조 개혁을 통하여, 연방 상원 의원, 연방 하원 의원, 지방 하원 의원 및 면장 (Presidente municipal)이 연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두 번째로는 1946 년 마누엘 아빌라 카마초 대통령에 의하여, 대통령 입후보자 경우, 반드시 정당 소속이어야만 한다는 사항이 66 년이 흐른 2012 년 선거법 개혁으로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어 48 명이 무소속으로 대통령 입후보 하였다. 해당 무소속 입후보자들은 중앙 선관위 (INE) 등록 유권자들로부터 최소 866,593 명의 지지 서명을 받아야만 하는 전제 조건이 있었으며, 이 중 3 명 (누에보 레온 주지사 하이메 로드리게스, 전 연방 상원 의원 아르만도 리오스 피테르, 전임 대통령 펠리페 칼데론 영부인 마르가리타 사발라)만이 조건을 충족하여 통과되었다. 이후, 하이메 로드리게스 및 아르만도 리오스 경우, 지지 서명 대부분이 조작되었다고 판단, 중앙 선관위로부터 실격 판단되었으나, 하이메 로드리게스 경우 (총 서명 중 58% 조작, 810,995 명이 선관위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유폭(?), 158,532 개의 위조 서명, 205,712 장의 복사된 서명, 23,644 장의 제출 서류 무효, 누에보 레온 소속 공무원들에 의한 근무 시간에 서명 관련 정치 활동, etc), 연방 선거 법원 (TEPJF: 총 7 명 판사 중, 4 명 찬성)으로부터 구제 받았다 (대통령 선거 패배 후, 기존 누에보 레온 주지사 복귀하였으나, 현재 대통령 입후보 관련 비리 수사 대상). 마르가리타 사발라 경우, 중도 포기하였다.

끝으로 생애 처음 투표권을 행사하는 12,000,000 명에 상당하는 젊은 밀레니엄 세대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하여 트위터, Youtube, Facebook 등 인터넷 커뮤니티 광고 비용으로 중앙 선관위 (INE)에 신고되고 6 월 20 일 발표된 금액은 로페스 오브라도르 MX \$3,600,000. 아나야 MX \$75,000,000. 메아테 MX \$67,000,000 에 해당한다. 물론, 2003 년, 2009 년, 2012 년 및 2015 년 선거 분석 토대, 중앙 선관위는 20 세에서 29 세 사이 연령대 투표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발표한 부분도 주의 깊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선거 관련 멕시코에는, 선거 전날 (토요일 자정에서 선거 진행 일요일 자정까지) 특이하게(터키, 인도, 태국, 필리핀,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유사하게 적용), 알코올 음료 판매 금지가 되는데 (일명, Ley Seca), 이는 1915 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선거법 (LGIPE) 300 조 의거, “각 지방 주는 선거일 및 전날 알코올 음료 판매에 대한 시간 제한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조항에 근거한다. 알코올 판매 제한 시간은 동법 의거, 지역마다 차이가 존재하는데, 멕시코 시티 경우, 식당 및 바 경우, 알코올 판매에 대한 제한이 없다 (물론, 해당 장소에서 소비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알코올 판매는 가능하지 않다).

대통령 선출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연방 헌법 (CPEUM) 82 조 의거 다음과 같다.

- 출생을 통한 멕시코 국적으로, 20 년 이상 멕시코 거주
- 선거일 기준 35 세 이상
- 선거일 기준, 1 년 이상 멕시코 체류 (30 일 미만 외국 체류는 기간 산정 불 포함)
- 특정 종교 직책 (신부, 목사 등) 수행하지 않음
- 군대에 속한 경우, 최소 6 개월 이전 퇴직
- 장관, 차관, 주지사 및 군청 장 직위 불가하며, 만약, 언급 직책 수행 경우, 선거일 기준 최소 6 개월 이전 사임

서술된 자격은 법적 최소 자격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각 정당을 대표한 대통령 후보에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 내규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제도 혁명당 (PRI) 경우;

- 제도 혁명당에 반하는 정당 소속 원 불가
- 제도 혁명당원으로 최소 10 년 유지
- 범죄 기록 (Antecedentes penales) 불가

- 충실한 정당 원

국민 행동당 (PAN) 경우에는, 정당 원 10% 해당 지지 서명, 왜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 바른 생활하는 자 (?), etc 이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AMLO, 이후, 로페스 오브라도르) 속한 신민주당 (통칭 모레나 Morena) 경우, 해당 당 대표 대통령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 2 년 이상 정당 원
- 대통령 재임 시, 수령하는 월급 50%를 기부한다는 서약
- 정당 회비 납입

각 정당은 지향하는 정치 목표에 따라 상기와 같은 당규를 표방하고 있으나, 재량에 따라 유도리 (?)있게 후보에게 적용하고 있다.

대통령 임기 관련, 2014 년 이루어진 선거 개혁 토대, 6 년 임기가 아닌 5 년 10 개월에 해당하는 연방 행정부 직위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는 기존과 같이 2018 년 7 월 선출된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동년 12 월 1 일 대통령에 정식 취임하게 되고, 2024 년 차기 대통령은 선거법 개혁 토대, 동년 12 월 1 일이 아닌 10 월 1 일부터 공식적으로 대통령 정식 취임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대통령 인수 기간을 기존 5 개월에서 3 개월로 줄임으로써, 해당 기간 발생 가능 정당간 권력 투쟁을 최소화 함이 주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멕시코 대통령 임기는 6 년인데, 선거법 개혁으로 2018 년 7 월 선출된 대통령만은 2 개월이 짧아진 결과가 된 것이다. 2018 년 적용될 멕시코 연방 지출 안 토대, 대통령은 2017 년 대비 3.75% 상승된 매월 MX \$259,628 (USD \$12,981) 임금 수령하고 있다.

멕시코 연방 상원 의원을 보았을 때, 멕시코 시티 포함 32 개 지역을 대표하는 6 년 임기로서, 주요 역할은 행정부에 의한 국외 정치에 대한 분석, 국제 조약 허가, 검찰청장, 대사, 영사, 재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에 대한 인준이라고 할 수 있다. 2018 년 적용될 멕시코 연방 지출 안 토대, 상원 의원은 2017 년 대비 4.75% 상승된 매월 MX \$164,480 (USD \$8,224) 임금 수령하고 있다.

멕시코 연방 상원 선출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연방 헌법 (CPEUM) 58 조 의거 다음과 같다.

- 출생을 통한 멕시코 국적

- 선거일 기준 25 세 이상
- 지역 주 출생 혹은 경계 주로서 최소 6 개월 이상 거주
- 군대 속하지 않고, 지역 주에서 직책 수행 불가, 속하는 경우, 선거일 기준 최소 90 이전 사임
- 장관, 차관 및 연방 대법원 판사, 연방 순회 법원 판사, 연방 선거 법원 판사, 연방 및 지방 선관위 위원 가능하지 않으며, 속하는 경우, 선거일 기준, 장차관 경우, 90 일, 기타 직급 경우, 3 년 이전 사임. 주 지사 경우, 주 지사 역임 주에서 연방 상원 의원 지원 불가
- 특정 종교 직책 (신부, 목사 등) 수행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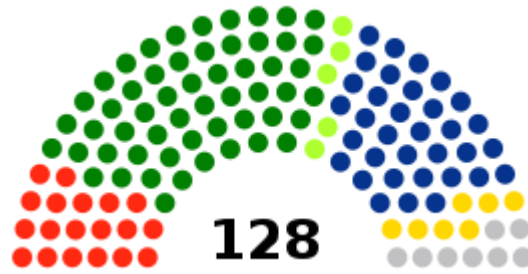
멕시코 연방 하원 의원 경우, 멕시코 인구를 대표하는 3 년 임기로서, 주요 역할은 연방 지출 예산에 대한 허가, 국가 회계에 대한 검토, 연방 선거 청 임원들에 대한 임명, 공무원 탄핵에 대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2018 년 적용될 멕시코 연방 지출 안 토대, 연방 하원 의원은 2017 년 대비 1.65% 상승된 매월 MX \$119,700 (USD \$5,985) 임금 수령하고 있다.

멕시코 연방 하원 의원 선출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연방 헌법 (CPEUM) 55 조 의거 다음과 같다.

- 출생을 통한 멕시코 국적
- 선거일 기준 21 세 이상
- 지역 주 출생 혹은 경계 주로서 최소 6 개월 이상 거주
- 군대 속하지 않고, 지역 주에서 직책 수행 불가, 속하는 경우, 선거일 기준 최소 90 이전 사임
- 장관, 차관 및 연방 대법원 판사 가능하지 않으며, 속하는 경우, 선거일 기준, 장차관 경우, 90 일, 연방 대법원 판사 경우, 2 년 이전 사임
- 특정 종교 직책 (신부, 목사 등) 수행하지 않음

2018 년 7 월 1 일 선출된 멕시코 연방 상원 의원 및 하원 의원은 공식적으로 동년 9 월 1 일부터 의원직을 수행하고, 64 번째 입법부를 구성하게 된다. 12 년까지 연임이 허용됨으로써, 선거를 통하여, 임기 6 년 상원 의원은 한번 더 동일 직위 유지 가능하고, 임기 3 년 하원 의원은 세 번까지 동일 직위 유지 가능하다. 2014 년 선거법 개혁 이전, 연방 상원 및 하원 의원은 연임 가능하지 않았다.

현재 (2018.7 월 1 일 선거 이전) 멕시코 연방 상원은 하기와 같이 구성되어있다.



55 제도 혁명당 (PRI) 34 국민 행동당 (PAN) 19 노동당 (PT)

8 무소속 7 민주 혁명당 (PRD) 5 녹색당 (PVEM)

현재 (2018.7 월 1 일 선거 이전) 멕시코 연방 하원은 하기와 같이 구성되어있다.



204 제도 혁명당 (PRI) 108 국민 행동당 (PAN) 53 민주 혁명당 (PRD)

47 모레나 (Morena) 38 녹색당 (PVEM) 21 시민 운동당 (MC)

12 신연합당 (Panal) 12 사회 화합당(PES) 5 무소속

## II. 주요 대통령 입후보 정치 배경 및 이력(履歷)

한국을 포함, 선거 입후보자 평가에 있어서 후보 가족 및 몇 십 년간 정치 역경(逆境)을 함께 거처온 입후보자 관계인들을 제외, 간접적으로나마 후보자를 알기 위해서는 정치 이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멕시코 연방제를 지향하고, 멕시코 연방 행정부 수장을 뽑는 7 월 1 일 선거는 이런 면에서, 멕시코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적 파급력 대비, 멕시코 소재 사업장을 소유한 모든 한국인들에게 지대한 파장을 일으키는 바, 주요 대통령 후보에 대한 정치 배경 및 이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막연히 특정 후보가 대통령 되었을 경우, 급진적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추측 대비 조금이라도 성향을 알아둔다면, 멕시코 상대 투자 등 모든 면에서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이다.

대통령 후보로서, 총 5 명이 입후보하였고;

- “함께 역사를 만들자” 구호 아래, 노동당 (PT), 사회 화합당 (PES) 및 신민주당 (국가 재발전 운동 (Movimiento Regeneracion Nacional) 이란 당 이름 때문에, 통칭 모레나 Morena) 연합 후보로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AMLO, 이후, 로페스 오브라도르)**
- “전진하는 멕시코” 구호 아래, 국민 행동당 (PAN), 민주 혁명당 (PRD) 및 시민 운동당 (MC) 연합 후보로서, **리카르도 아나야 코르테스 (RAC, 이후, 아나야)**
- “모두를 위한 멕시코” 구호 아래, 제도 혁명당 (PRI), 녹색당 (PVEM) 및 신연합당 (Panal) 연합 후보로서, 호세 안토니오 메아데 쿠리브레냐 (**JAMK, 이후, 메아데**)
- 2015 년 멕시코 누에보 레온 주지사를 겸임한 무소속 후보로서, 하이메 엘리오도로 로드리게스 칼데론 (JHRC, 이후, **브롱코**)
- 2006 년에서 2012 년까지 대통령 역임한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무소속 후보로 지원한 마르가리타 에스테르 사발라 고메스 델 캄포 (MEZGC, 이후, **마르가리타**). 2018 년 5 월 대통령 입후보 사임.

상기 5 명 대통령 후보 중, 주요 후보라고 할 수 있는 3 명 입후보자 (**로페스 오브라도르, 아나야, 메아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 1. 대통령 입후보 로페스 오브라도르 (Lopez Obrador) 정치 이력

- 1953 년 11 월 13 일 타바스코 주에서 장남으로 출생. 아버지는 상업 종사
- 1973 년 멕시코 국립 자치대 우남대 사회 학과 입학
- 1970 년대 중반 제도 혁명당 (PRI) 가입

- 1977 년 ~ 1981 년 타바스코 주 인디오 보호 위원회 활동
- 1980 년 3 월 로시오 벨트란 메디나와 결혼
- 1983 년 제도 혁명당 타바스코 주 당 대표 선출, 11 월 사임
- 1988 년 민주화 흐름 (Corriente democratico)이라는 제도 혁명당 산하 단체 가입, 추후 해당 단체는 “국민 민주화 우선 (FDN, Frente Democratico Nacional)” 대통령 선거 관련 연합 전선으로 발전
- 1989 년 FDN 연합 전선이 민주 혁명당 (PRD)으로 발전되고, 언급 당에 타바스코주 당 대표로 선출
- 1994 년 민주 혁명당 대표 타바스코 주지사 도전 (38.7%, 상대 제도 혁명당 PRI 후보 57.5%) 및 낙선
- 1996 년~ 1999 년 민주 혁명당 당 대표
- 2000 년 멕시코 시티 시장 선출 (37.7%, 상대 국민 행동당 후보 33.4%)
- 2006 년 대통령 입후보 도전 (35.31%, 국민 행동당 입후보 칼데론 35.89%) 및 실패
- 2012 년 대통령 입후보 도전 (31.57%, 제도 혁명당 입후보 페냐 니에토 38.20%) 및 실패

### 로페스 오브라도르 관련 정치 의혹(疑惑)

2000 년 멕시코 시티 재임 시절, 산타페 (Santa Fe) 지역 공사 관련 직권 남용 혐의로 탄핵까지 당하였으나 이후, 직권 남용 관련 적용 근거 법률 조항이 없음으로 무혐의 판단되었고, 2018 년 선거 기간 대비, 특별한 정치 의혹 없음

### 2. 대통령 입후보 아나야 (Anaya) 정치 이력

- 1979 년 2 월 25 일 멕시코 주 태생. 아버지 (화학자 리카르도 아나야 말도날도) 및 어머니 (건축가 마리아 엘레나 코르테스 델 팔라시오) 사이에서 남매 중 동생
- 2000 년 국민 행동당 입후보자로, 케레타로 소재 지방 국회 하원 도전 및 낙선
- 2002 년 케로타로 국립대 (Universidad Autonoma de Queretaro) 법대 졸업. 졸업 논문 주제 “멕시코 그래피티, 낙서인가?, 재앙인가?”
- 2003 년 ~ 2009 년 국민 행동당 소속 케레타로 주지사 프란시스코 가리도 파트론 비서실장으로 재직
- 2005 년 26 살때, 카롤리나 마르티네스 프랑코와 결혼 (2 남 1 녀)



- 사립대 중 하나인 바예데 멕시코 (Universidad del Valle de Mexico)에서 세법 관련 석사 학위
- 2009 년 케레타로 소속 지방 국회 하원 의원 선출
- 2010 년 ~ 2011 년 케레타로 지방 의회 국민 행동당 대표
- 2011 년. 멕시코 국립 자치대 우남대 (UNAM). 박사 학위. 졸업 논문 주제 “1939 년 1965 년 2002 년 국민 행동당 정치 이념에 대하여”
- 2011 년 관광청 산하 관광 기획 차관 근무
- 2012 년 연방 국회 하원 의원 선출. 재무부 관련 교섭 단체 활동.
- 2014 년 ~ 2017 년 국민 행동당 대표
- 2017 년 12 월 대통령 입후보 위하여 국민 행동당 대표 사임

### 아나야 관련 정치 의혹(疑惑)

#### 첫번째. 불법 자금 세탁 혐의

- 멕시코 정치 관련 주간지 Proceso 에 의하여 2018 년 2 월 제기된 의혹으로서, 아나야 및 가족들 소유 Juni Serra 유한 회사를 통하여 13.5 헥타르 해당 케레타로 부동산을 페이퍼 컴퍼니 (MMPD, Manhattan Master Plant Development)를 통하여 MX \$54,000,000 (USD \$2,700,000) 상당 자금 세탁 의혹.
- 언급 페이퍼 컴퍼니 (MMPD)는 국세청 (SAT)에 의하여 실체 존재하지 않는 유령회사로 발표되었고 (참고로, 2014 년 세무 개혁 토대, 국세청은 영수증 판매등 세무 회계 관련 비정상 회사에 대하여, 관련 회사에 대한 리스트를 인터넷 홈페이지 및 연방 관보에 발표 중), 재무부 (SHCP) 산하 특별 수사대 (UIF, Unidad de Inteligencia Financiera)측도 관련 회사가 캐나다, 도미니카, 스위스, 지브롤터 및 멕시코에 걸쳐 자금 세탁 혐의가 있는 회사로 발표.

#### 두번째. 국민 행동당 (PAN) 내부 경선 과정

- 정당한 국민 행동당 내부 경선이 아닌 밀실에서 진행된 대통령 후보 선출 의혹

### 3. 대통령 입후보 메아데 (Meade) 정치 이력

- 1969 년 2 월 27 일 멕시코 시티에서 4 남매 중 출생. 아버지는 제도 혁명당 (PRI) 소속 전직 연방 하원 의원 디오니시오 메아데 (Dionision Meade y Garcia de Leon). 3 남매 자녀
- 1994 년 ITAM 대 경제 학부 졸업
- 1995 년 멕시코 국립 자치대 우남대 법대 졸업
- 1991 년 보험 위원회 (CNSF) 분석가 활동
- 1997 년 예일 (Yale) 대 경제학 박사
- 1997 년 ~ 1999 년 연금 위원회 (CONSAR) 재무 부장
- 2000 년 ~ 2002 년 재무부 (SHCP) 부서장
- 2002 년 ~ 2006 년 농업 관련 정부 산하 저축 은행 관리 기구 (Financiera rural) 부장
- 2006 년 재무부 장관 비서 실장
- 2008 년 재무부 차관
- 2011 년 1 월 에너지부 장관
- 2011 년 9 월 재무부 장관
- 2012 년 ~ 2015 년 외무부 장관
- 2015 년 8 월 사회 개발부 장관
- 2016 년 9 월 재무부 장관
- 2017 년 12 월 제도 혁명당 대통령 입후보

### 메아데 관련 정치 의혹(疑惑)

- 연방 감사 부 (ASF)는 메아데 사회 개발부 재직 시절 발생한, MX \$540 백만 페소 상당公款 횡령에 대하여 연방 검찰부 (PGR)에 신고되고 조사 진행 중

### **III. 주요 대통령 입후보 선거 공약**

6 가지 항목 (경제 안정, 투자, 법적 안정, 행정 안보, 부패 방지, 노무) 대비 주요 후보 세 명 대통령 선거 공약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한국 포함, 모든 공약이 이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

선거 캠프에서 국민 상대 약속한 것으로 공약 이행 가능성이 높으므로 멕시코 소재 사업체 방향 설정에 있어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 1. 로페스 오브라도르 (Lopez Obrador) 후보

### A. 경제 안정

-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광범위한 공공 투자를 통하여 일자리 생성 및 민간 투자 유도
- 정부 산하 모든 물품 구입은 중앙에서 관리 통제
- 멕시코 중앙 은행 독립성 보장 및 변동 환율제 유지
- 미국으로부터 주요하게 수입되는 가솔린과 같은 석유 파생 물과 옥수수, 콩 및 밀 등 일차 작물에 대한 국내 생산 시설 확충

(YG 참고: 2018 년 1 월 통계청 (INEGI) 발표 토대, 2017 년 기간 동안 석유 수출 USD \$23,608.4 Million, 수입 USD \$42,010.1 Million. 석유 제외한 수출에서 미국으로 가는 물량은 전체 국가들 중 81.53% 차지 (자동차 관련 27.30%))

- 최소 임금 인상, 학자금 지원 범위 확대, 노인들에 대한 연금 확대
- 정부 소유 모든 비행기 및 헬리콥터 판매, 현 대통령 궁 (Los Pinos)을 전시회 등 문화 시설로 일반에 개방
- 소득세 (ISR) 및 부가가치세 (IVA) 현 상태 유지 및 국경 지역 경우, 소득세 20% 및 부가가치세 8% 인하

(YG 참고: 2014 년 세무 개혁 이전, 국경 접경 지역 경우, 부가가치세 11%, 기타 다른 지역 16% 적용)

### B. 투자

- 고위 공직자들 임금 및 기타 관련 서비스 (자동차, 핸드폰 등) 에 대한 감액 (대법원 판사, 연방 상원 및 하원 의원들 및 고위 공직자 대상)
- 세금 및 석유 판매로 인하여 확충된 잉여 세금을 투자 및 외채 감소 목적 사용
- 칸쿤과 빨렝게 지역을 연결하는 관광 열차 건설 추진
- 오아하카 소재 살리나 크루스 (Salina Cruz) 무역 항구 추진 및 살리나 크루스와 코아찰코알코스 (Coatzacoalcos) 철도망에 대한 현대화
- 인터넷 망 확장

- 정부 투자 민관 기구에 대한 정비
- 가솔린 등 자동차 유류를 현 변동 제에서 고정 제로 전환, 새로운 2 개 정유 시설 설치  
(YG 참고: 제도 혁명당 (PRI) 소속 페냐 니에토 대통령에 의하여 2013 년 12 월말 통과된 에너지 개혁에 발맞추어, 2017 년 1 월부터 자동차 유류를 시장 상황 대비 변동제 채택. 2018 년 6 월 29 일 멕시코 시티 기준, 일반적으로 많이 주유되는 옥탄가 87, Magna 경우, 리터당 MX \$19.79 (USD \$0.989), 옥탄가 93, Premium 경우, MX \$20.19 (USD \$1.009), 디젤 MX\$19.29 (USD \$0.965) 형성됨)
- 멕시코 시티 신공항 건설 여부에 대한 재검토

### C. 법적 안정

- 멕시코 국영 기업 (PEMEX) 상대 계약서 검토를 통한 부패 방지 및 투자 확대 유도
- 2014 년 멕시코 에너지 개혁을 통하여 유정 개발 등 참여 민간 기업들에 대한 계약 사항 존중 (2014 년 멕시코 에너지 개혁 관련 자료 YG consulting 홈페이지 ([www.ygconsulting.net](http://www.ygconsulting.net)) 무료 다운 로드 가능)

### D. 행정 안보

- 마피아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마약 재배한 자에 대한 사면, 경찰 및 군인 연합된 안전처 신설, 사회 폭력 원인에 대한 근본적 접근

### E. 부패 방지

- 불법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하여 은행 및 재무 기관에 대한 보다 더 강화된 법안 제정
- 국제 기구 협력, 부패 방지 위한 보고서 채택
- 정확한 시장 가격 확인 위한 네트워크 설치
- 부패 확인 시, 특수 공직자에게 허용된 사면 권 철회
- 정치 무관 독립된 경찰청
- 2014 년 에너지 개혁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는 제반 사항들에 대한 재검토

### F. 노무

- 교사 신분 및 권리를 위협하는 교육 개혁 중단
- 국민 연금 조성, 대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 청년 실업 금 지원

- 노조에 대한 자유 및 독립 보장, 독립 노조 강화 지원
- 노무 관련 개혁법이 헌법 보장 기본 권리 위배 여부 되는지에 대한 조사
- 노사 분쟁 시, 사법부 및 노동청에 대한 권한 관계 정비
- 노조 관련 등록, 노사 단체 계약, 파업 관련 분쟁은 사법부 관할
- 사법부 관할, 노조 관련 투표에 대한 익명성 및 공정성 보장
- 중소기업에 대한 재무적 지원
- 노동법 준수 여부 위한 노무 감사 강화
- 사업체내 노무 환경 관련 법 준수 여부 노무 감사 강화
- 사업체 내 노사 단체 협약 중재를 위한 제도적 기반 신설
- 고용주들이 직원들 대상 공정한 임금 지불하고 있다는 증서 제도
- 헌법 보장 인권 토대, 노무 소송에 있어서 인권 위배 여부 감시
- 노동부 장관 예정 루이사 마리아 알칼데 의견 토대;
  - ❖ 아웃 소싱은 유지하나, 아웃 소싱 오용 방지를 위하여 현 제도의 강화
  - ❖ 현 최저 임금을 재임 6 년 기간 동안 두 배로 인상
  - ❖ 견습생으로 취직하는 청년 경우, 정부에서 1 년 동안 MX \$3,600 매월 지원
  -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노사 연결 취업 창구

## 2. 아나야 (Anaya) 후보

### A. 경제 안정

- 공공 투자 확장으로 경제 성장률 2.1% 이상 목표, 국내 총생산 (GDP)을 임기 3 년내에 2.3%에서 5% 상승
- 모든 멕시코 국민에게 매월 MX \$1,500 지급. 가솔린 가격 인하, 최저 임금 인상
- 국경 지역 경우, 소득세 20% 및 부가가치세 8% 인하

### B. 투자

- 회사 설립 위한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한 민간 투자 활성화
- 국경 부근 부가가치세 인하를 통한 투자 촉진
- 공적 자금 운영에 대한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

- 새로운 정유 시설 설치 반대

### C. 법적 안정

- 입법부 산하 새로운 세무 기구 (Consejo fiscal)를 통한 공공 및 민간 투자 확대

### D. 행정 안보

- 시민 안전부 (Secretaria de Seguridad Ciudadana)를 신설하여, 현 경찰에 대하여 두 배 이상 인력 확충, 임금 인상 및 전문화

### E. 부패 방지

- 정치권내 현금 흐름 억제 및 블록 체인 기술을 통한 자금 운영 감시
- 국제 기구와 협의하여 진실 위원회를 신설하고, 해당 기구를 통하여 정치 이해 간섭 없이, 대통령 포함 부패 혐의자에 대한 공정한 수사 진행
- 부패 및 면죄가 멕시코를 위협하는 가장 큰 죄악이라는 인식하에, 부패 연관 모든 공직자에 대하여 공직 임명에 대한 제한
- 연방 헌법 102 조 개혁으로 행정부와 완전히 독립된 경찰청 추진

### F. 노무

- 단기 및 중장기 계획 설립 위한 경제 사회 위원회 설립
- 국민 연금 제도에 대한 개혁
- 실업 연금 개시
- 노조 자유 및 민주화 강화, 부패 노조 해체
- 마킬라 지역 노동자 기본 권한 유지
- 가정과 일터 이해 충돌 방지 위한 제도
- 멕시코 국민들에 대한 최소 금액 지원

## 3. 메아데 (Meade) 후보

### A. 경제 안정

- 선택적 계층에 대한 공공 자금 지원 (학생에 대한 학비 보조, 노인들에 대한 경제 원조 등)
-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 유도 및 공공 투자 보조를 통한 개혁 진행
- 석유 기반 국가 수입 의존도 탈피 및 국가 수입 관련 신중한 세무적 접근

## B. 투자

- 공공 자금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 강화
- 민간 투자 유도를 통한 사회 기반 시설 확충
-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제 특별 지역에 대한 지속성
- 가솔린 가격 시장 상황 기준에 따른 현 변동 제 및 새로운 정유 시설 설치 반대

## C. 법적 안정

- 현재 진행 중 국제 조약 및 제도적 개혁 추진

## D. 행정 안보

- 재무부 산하 특별 수사대 (UIF)를 통하여, 불법 자금에 대한 회수 권한 신설. 일반 범죄에 대하여 통일된 형법 신설, 첨단 기술을 통하여 국경을 통한 불법 무기 유통 방지

## E. 부패 방지

-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INE) 및 국세청 (SAT)을 부패 방지 위원회와 연결
- 부패 방지 위한 공무원들 대상 자산 증빙 서류 제출 및 7:7 (7 de 7) 보고서 제출 의무
  - ❖ 7:7 보고서는 부패 방지 목적 설립 민간 단체들에 의하여 진행된 운동으로, 초기, 공무원들 대상 3:3 보고서로부터 시작되었다. 해당 보고서 토대, 고위 공직자들 (정당 대표, 국회 의원들, 선거 입후보자 등)은 ① 자산 관련 보고서 ② 이자 관련 보고서 ③ 세금 납부 증을 국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운동이다. 메아데 경우, 3 가지 보고서에 추가적으로 ④ 공인 회계사로부터 입후보자 신고 내역에 대하여 이상 없다는 확인서 ⑤ 멕시코 전 지역에서 입후보자 및 부인 이름으로 된 부동산에 대한 신고 ⑥ 신고 내역 소득 외, 별도 소득원이 없다는 신고 ⑦ 앞 전 언급 정보에 대한 공증

- 재산에 대한 국가 몰수 법 (Ley de extincion de dominio) 보완을 통하여, 부패를 통하여 축적된 재산에 대한 몰수
- 부패한 자에 대한 형량 높임과 연방 헌법 102 조 개혁을 통한 독립된 경찰청 추진

## F. 노무

- 교수들에 대한 임금 인상
-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 위한 근무 환경
- 현 노동 관계법에 대한 개혁
- 최소 임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정책
- 일자리 창출 및 생산성 개선 위한 정책
- 가사 전담 자에 대한 임금 지불 및 대학교 등 고등 교육비에 대한 세무적 공제
- 여성 노동자에 대한 지원
- 전일제 어린이 놀이방 신설
- 가사 노동자에 대한 사회 보험 가입 제도

## 4. 공통

- **최저 임금:** 모두 현 최저 임금 (2018 년 기준, 하루 최저 임금 MX \$88.36 (USD \$22,18))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최저 임금 증가에 대하여 동의
- **NAFTA:** 2018 년 4 월 9 일 멕시코 국내 총 생산 (GDP) 21%를 대표하는 상공인 협의회 (American Chamber) 와의 미팅 자리에서 3 명 후보 공통적으로 현재 미국과 진행되고 있는 NAFTA 및 TPP 유지를 언급. 참고로, 로페스 오브라도르 소속 모레나 및 노동당은 자국 산업 피해 우려, 2018 년 4 월 연방 상원에서 통과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인준에 대하여 반대 투표, 로페스 오브라도르 경우에도 국제 조약에 치우치기 보다는 국내 산업 육성이 우선이라는 미국 트럼프 입장과 대동소이한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명

2018 년 6 월 1 일부터 멕시코산 철강 (25%) 및 알루미늄 (10%)에 부가되는 트럼프 행정부 추진 미국 관세에 대하여,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무역 전쟁이 아닌 대화를 통한



해결을 제시하였다면, 아나야는 수출에 있어서 미국 의존성을 탈피하는 수출 국가에 대한 다변화 및 WTO 개입을 통한 해결 방안, 메아데는 동일한 무역 전쟁을 시사하였다.

- **세무 개혁:** 2018 년 미국 법인세 (21%) 인하 관련, 멕시코 전반적 세금 인하 포함된 세무 개혁에 대하여, 모든 후보들이 구체적인 답변을 하고 있지 않으나 (국경 지역 세금 인하는 로페스 오브라도르 및 아나야 경우, 찬성 입장), 2013 년 국가 전체 수입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 41%에서 2017 년 57.7% 비율로 의존성이 커진 상태에서 전반적 세금 인하는 없을 것으로 예상 (2018 년 현재 법인세 30%, 개인 소득세 최대 35%)

#### IV. 결과 및 승리 요인 분석

멕시코 역사상 제일 많은 공무원을 뽑는 선거로 기록될 2018 년 7 월 초 선거는 인원 수 비례 많은 멕시코 국내 문제점도 국내외 매스컴을 통하여 알려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상대 후보 대상 근거 없는 비방은 한국 포함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일비재하니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멕시코 경우,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지속이 해결해야만 할 사회 문제 중 하나라고 언급되고 있다. 미국 보다 총기 소유 허가에 있어서 엄격한 법률이 적용되지만 실제로는 불법 무기 유통을 통한 비공식적 시장이 활성화 되어있고, 넓은 영토에 대한 치안 질서가 확립되지 않아 범인 검거가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한다면 정치 테러가 존재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인식할 정도이다 (비공식적으로 중남미 마약이 멕시코를 통하여 미국으로 수출 (?) 되고 있다면, 미국은 멕시코를 통하여 무기를 수출 (?) 하고 있다).

2018.06.25 일 CNN 에서도 참조된 정치 컨설팅 업체 Etellekt 발표에 의하면, 2017 년 9 월 8 일 공식 선거 시작일부터, 2018 년 6 월 16 일까지 기간 대비, 120 명 정치인 암살 (102 명 남성, 18 명 여성. 66% (80 명)는 지역 집권 여당 상대 반대 진영 입후보자에게 발생), 입후보자 관계인 351 명 암살 및 465 차례 입후보자들에 대한 협박이 일어났다고 발표하고 있다.

암살 관련 제일 많은 주들은 아카풀코 위치한 게레로 (27 명) 및 오아하카 (19 명)이며, 협박 관련 제일 많은 주들은 뿌에블라 (62 차례), 게레로 (53 차례), 멕시코 주 (40 차례) 이고, 누에보 레온 경우, 협박 관련 어떠한 신고도 없었다고 발표하고 있다.

정치인 뿐만 아니라 멕시코 언론인들은 암살 주요 표적 (페냐 니에토 대통령 재임 기간 45 명 언론인 암살)이 되고 있으며. 이는 직업별 멕시코 최저 임금 테이블에서 기자가 제일 높은 임금을 받는 다는 것에서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2018 년 하루 최저 임금 MX \$88.36, 기자 MX \$236.28). 상기 기술된 바와 같이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려는 입후보자 및 진실을 알리려는 언론 관계자 암살에서 보았을 때, 국내 안보 질서 확립에 한층 더 주의를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2018 년 7 월 1 일 대통령 선거 결과, “함께 역사를 만들자” 구호 아래, 노동당 (PT), 사회 화합당 (PES) 및 신민주당 (모레나 Morena) 연합 후보, **로페스 오브라도르, 53%, “전진하는 멕시코”** 구호 아래, 국민 행동당 (PAN), 민주 혁명당 (PRD) 및 시민 운동당 (MC) 연합 후보 **아나야 후보, 22.5%, “모두를 위한 멕시코”** 구호 아래, 제도 혁명당 (PRI), 녹색당 (PVEM) 및 신연합당 (Panal) 연합 후보, **메아데, 16.4%**로서, 3 번의 대통령 도전 끝에 마침내 연방 행정부 수장 직위를 차지 하였다.

2018 년 9 월 1 일 임기 시작, 6 년 임기 연방 상원 의원 128 명 경우, 로페스 오브라도르 연합 후보 측 69 석, 아나야 후보 측 39 석, 메아데 후보 측 20 석으로 연방 상원 의원 과반 (54%)를 차지하였다. 이는 기존 제도 혁명당 및 국민 행동당이 과반 (70%)을 차지하던 현실에서 다른 정당과 협조없이도 충분히 로페스 오브라도르 추진 입법을 상원 권한 안에서 통과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연방 하원 경우에도 상원과 동일하게 2018 년 9 월 1 일 동일 임기 시작, 3 년 임기 연방 하원 의원 500 명 경우, 로페스 오브라도르 연합 후보 측 310 석, 아나야 후보 측 129 석, 메아데 후보 측 61 석으로 연방 하원 의원 역시 과반 (62%)를 차지하였다. 이로서, 기존 제도 혁명당 및 국민 행동당이 과반 (63%)을 차지하였던 것을 비슷한 수치로 되돌렸다는 데에서 의미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이야기 하였듯 2014 년 선거법 개혁으로 최대 12 년 연임을 할 수 있는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당 소속 연방 상원 의원들 및 하원 의원들은 차기 정부가 입법부 및 행정부를 장악한 시점에서, 로페스 오브라도르를 보조 및 견제하여 자신들 임기를 연장하는데 최선의 노력함과 동시에,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트럼프에 의하여 야기된 무역 전쟁으로 혼란한 세계 경제에서 멕시코 경제를 잘 이끌어 갈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멕시코 시티 포함 9 개 주지사 선거 결과를 본다면 하기와 같다.

- ✓ **멕시코 시티** - 로페스 오브라도르 연합 후보 측 당선 (47%.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총 인구 8,918,653 명)
- ✓ **타바스코** - 로페스 오브라도르 연합 후보 측 당선 (61.45%. 아단 아우구스토 로페스 헤르난데스. 차기 대통령 출생지 및 정치적 고향. 총 인구 2,395,272 명. 로페스 오브라도르 소속 모레나 지방 의회 제 1 당 획득)
- ✓ **치아파스** - 로페스 오브라도르 연합 후보 측 당선 (39.84%. 루티요 에스칸돈 카데나스. 총 인구 5,217,908 명. 모레나 지방 의회 제 1 당 획득)
- ✓ **모렐로스** - 로페스 오브라도르 연합 후보 측 당선 (52.45%. 콰우테목 블랑코. 총 인구 1,903,811 명. 모레나 지방 의회 제 1 당 획득) (사족: 1998 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한국 상대 개구리 뽀박질 묘기를 보여준 축구 선수)
- ✓ **베라크루스** - 로페스 오브라도르 연합 후보 측 당선 (43.70%. 쿠이틀라후악 가르시아. 총 인구 8,112,505 명. 모레나 지방 의회 제 1 당 획득)
- ✓ **푸에블라** - 아나야 연합 후보 측 당선 (37.82%. 마르카 에리카 알론소 이달고. 총 인구 6,168,883 명. 모레나 지방 의회 제 1 당 획득)
- ✓ **유카탄** - 아나야 연합 후보 측 당선 (39.22%. 마우리시오 빌라 도살. 총 인구 2,097,175 명)
- ✓ **과아나후아토** - 아나야 연합 후보 측 당선 (49.84%, 디에고 신후에 로드리게스. 총 인구 5,853,677 명)
- ✓ **할리스코** - 시민 운동당 후보 측 당선 (39.01%, 엔리케 알파로. 아나야 후보와 연합한 당. 총 인구 7,844,830 명. 모레나 지방 의회 제 1 당 획득)

- ✓ **지방 의회 과반 차지** - 주지사 선거는 없으나 지방 의회 선거 있는 18 개 주 중, 12 개 주에서 모레나 정당 과반 차지 (바하 캘리포니아 수르, 콜리마, 두랑고, 멕시코 주, 게레로, 이달고, 미초아칸, 오아하카, 시날로아, 소노라, 틀라스칼라, 사카테카)

결과적으로 총 9 개 주 지사 중에서, 5 개 후보 지역 당선을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이끌어냄으로써, 숫자 면에서 보았을 때, 연방 상원, 하원과 동일하게 과반으로 압승하였다고 평가 할 수 있다.

역대 투표 불참율을 본다면, 통계청(INEGI) 발표 토대 1988 년 (칼르로스 살리나스 고르타리 대통령) 49.3%, 1994 년 (에르네스토 세디요) 22.8%, 2000 년 (비센테 폭스) 36.1%, 2006 년 (펠리페 칼데론) 41.4%, 2012 년 (페냐 니에토) 36.7%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번 선거는 22.84% 불참율을 보임으로서, 1994 년 이래 역대 두번째 불참율, 즉, 투표 참여율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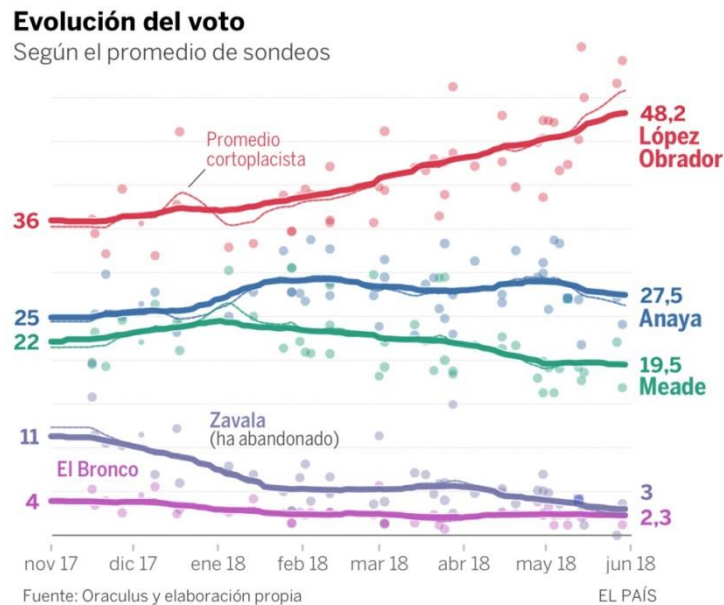
투표 참여율에서도 간접적으로 나타나듯, 변화 열망에 대한 물결은 한국 서울과 같이 정치 경제적 상징성 많은 **멕시코 시티** 경우를 보았을 때, 선거 참여율로 표시되는 관심이 1997 년 이래, 최대를 나타내었는데, 역대 참여율 토대, 1997 년 67.17%, 2000 년 69.86%, 2003 년 43.66%, 2006 년 67.24%, 2009 년 41.51%, 2012 년 65.98%, 2015 년 44.15%, **2018 년 70.19%**로서 반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존 정권들에 대한 심판 및 변화 열망은 로페스 오브라도르 텃밭이라고도 할 수 있는 멕시코 시티 16 개 구청장 선거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한인 밀집 지역이 위치한 콰우테묵 구청장 및 미겔 이달고 구청 (폴랑코)을 비롯 총 11 개 구청에서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승리를 하였다.

중앙 선관위 (INE) 등록 투표권자 89,332,031 명 중 2018 년 7 월 1 일 선거는 로페스 오브라도르 53 %, 아나야 22.5 %, 메아데 16.4 % 로서 최종적으로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3 번에 걸친 행정부 수장 도전 끝에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출정이 마지막 대통령 선거 도전이라고 지지자들에게 공언하고 출발한 로페스 오브라도르 (65 세)는 비교적 젊은 후보라고 할 수 있는 두 후보 (39 세, 49 세)를 상대로 많은 격차로 승리를 거두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선거 진영과 러시아 정부측간의 스캔들이 선거 막바지, 미국 측 중앙 정보부 (CIA) 및 제도 혁명당에 의하여 제기되었으나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승리는 공식 선거 운동 시작 때부터 상대 후보들 대비 대략 20% ~ 30% 차이로 시작하여, 7 월 1 일 선거 때까지 특별한 정치 이슈 없이 해당 간격을 유지한 측면에서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로페스 오브라도르 승리를 예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의 대통령 도전 끝에 완성된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 승리 요인은 주요하게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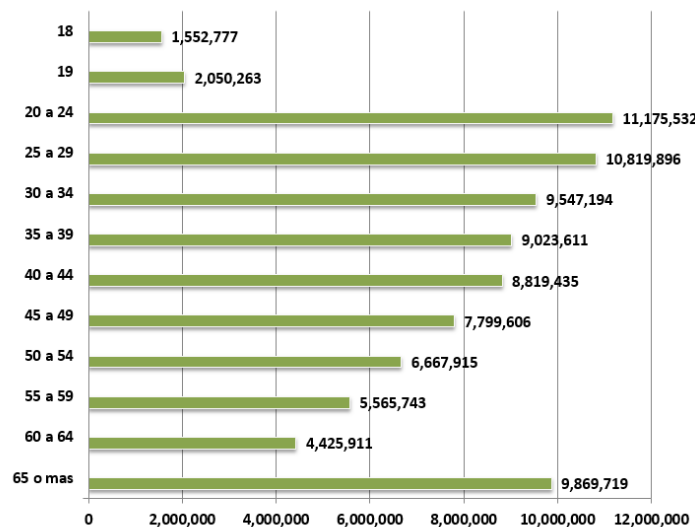
첫 번째. 대통령 입후보자 2 위 3 위 후보자들간 비방 통한 어부 지리(漁夫之利)



대선 기간 여론 조사 선호도 1 위를 달리고 있는 로페스 오브라도르 (40 % ~ 60%) 선전(善戰) 상황에서, 2 위 아나야 (18% ~ 28%) 및 3 위 메아테 (15% ~ 22%) 후보 간 인신 공격을 포함한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방 전 심화. 2018 년 2 월 Youtube 를 통하여, 아나야 친구라고 알려진 Manuel Barrerio 의 동생이라 추측되는 사람이 아나야 불법 자금 세탁, 해당 자금의 대선 운영 및 페냐 니에토 대통령과 로페스 오브라도르 밀약 루머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몰래 카메라 유출되었고, 해당 몰카에 대하여, 메아테측이 아나야를 “찌질한 도둑놈 (Vulgar ladron)”이라 표현, 아나야측은 메아테를 “죽은 모기 새끼 얼굴을 하고 있다 (Cara de mosquita muerta)”라고 맞받아침으로 상징되는 2,3 위간 싸움으로 대선 투표 전날까지 일부에서 이야기되던 2, 3 위간 밀약을 통한 전략적 통합 가능성 희박해짐과 동시에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어부지리(漁夫之利)로 계속하여 선두 자리를 유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두 번째. 젊은 유권자들의 선택

저 출산 고령화 원인, 한국 평균 연령 37.3 세로서 인구 절벽을 염려하고 있는 한국에 반하여, 통계청 (INEGI) 발표 토대, 평균 연령 27 세로 젊은 층이 주축이 되는 역동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멕시코에서 기존 여당들에 대한 배신감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정부 여당 구성에 대한 기대감이 로페스 오브라도르 승리 요소 중 하나였다고 평가 할 수 있다 (하단, 중앙 선관위 (INE) 2018 년 발표 연령별 유권자 수 참조).



즉, 2000 년 국민들이 70 년 이상 정부를 장악하였던 제도 혁명당 (PRI)을 누르고 당선시켰던 국민 행동당 (PAN) 비센테 폭스 대통령과 같은 당 칼데론 대통령에 대한 12 년 동안의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고, “그래도 옛날이 좋았다”는 향수 토대, 기존 제도 혁명당 페냐 니에토 대통령으로 회귀하였지만, 두당 (제도 혁명당, 국민 행동당) 모두 “그밥에 그나물이다”이라는 인식아래, 새로운 정당을 추구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예전보다 높아진 교육 수준에 반하여 정체되어있는 임금, 변하지 않는 부패한 여당에 대한 식상(食傷)에 맞물려서, 투표권자의 대략 절반 정도가 39 세 이하이며, 5 명 중 한 명이 이번 선거에 투표권을 가지는 일명 밀레니엄 세대들 포함한 젊은 유권자 층은, 대통령 선거 이전 진행된 18 세에서 29 세 사이 로페스 오브라도르 선호도에 있어서 41% ~ 47% 를 형성한 만큼, 젊은 층의 투표는 많은 중요 승리 요소 중 하나였다고 생각될 수 있다 (참고로, 2018 년 6 월 13 일 민간 비영리 단체 RIMISP 발표 토대, 멕시코는 빈부 및 차별 관련 불평등이 라틴

아메리카 7 개 비교 국가 (칠레, 에쿠아도르, 페루, 볼리비아, 콜롬비아, 과테말라, 멕시코) 중 제일 심한 나라로, 선정되었다).

세분화해서, 주요 지지 층은 2018 년 7 월 1 일 4 백 8 십만명 정도로 예상되는 처음 투표권을 행사하는 18 세에서 21 세 사이 젊은 유권자들로서 한국 서울 시장처럼 중요성 및 상징성을 가지는 멕시코 시티 시장을 역임 (2001 ~ 2006) 로페스 오브라도르를 직간접적으로 매스컴을 통하여 접한 세대와 함께 문화 예술 인사, 마약과의 전쟁이란 미명 하에 자행된 폭력과 경제 위기를 피부로 직접 느낀 1 차 산업 종사자와 소규모 영세 상인, 실생활과 동떨어진 최소 임금 기반 노동자, 공립 학교 학생들 및 열악한 처우 받는 교사들이라고 할 수 있다.

#### 세 번째. 페냐 니에토 대통령 소속 제도 혁명당 (PRI) 정부 (2013 ~ 2018) 실패

페냐 니에토 정부의 모든 정책이 잘못되었다고는 단정 지을 수 없으나, 멕시코 국민들에게는 행정부 여당 실책 관련 세가지 면 (**부패, 폭력, 인권 유린**)에서 비판이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 ● 주요 5 가지 부패 스캔들

- ✓ 2014 년 기자에 의하여 폭로된 대통령 영부인에 의한 USD \$7 백만 상당 주택 구입: 멕시코 - 케레타로 고속 철도 관련 낙찰 (落札) 받은 중국 기업과 합작한 대통령 지인 후안 아르만도 (JAHC, Juan Armando Hinojosa Cantu)로부터 구입한 멕시코 시티 인근 부유층 밀집 지역에 위치한 주택 구입으로 영부인은 해당 금액은 자신이 드라마 배우 시절 받은 것으로 해명하였으나 (배우 활동 기간 대비, 미국 헐리우드 유명 여배우 몸 값 이상 수령 시 언급 금액 산출), 추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실수 (Error) 였다” 고 유감 표명 (기존 입찰이 무효화됨으로써 중국 정부와 문제 발생)
- ✓ 2014 년 현 외무부 장관 루이스 비데가라이 주택 구입: 미국 월 스트리트 저널에 의하여 폭로된 사건으로, 영부인 사건 한달 후, 앞전 비리 연결된 동일한 후안 아르만도 (JAHC)측으로부터, 멕시코 주 위치 USD \$500,000 상당 주택을 루이스 비데가라이 측이 구입한 것으로, 판매 자는 적자 판매, 구매자는 18 년 담보

계약했다고 해명하였으나 몇달 후 잔금 환불 (연방 감사 국에 의하여 감사 진행되었으나 이상 없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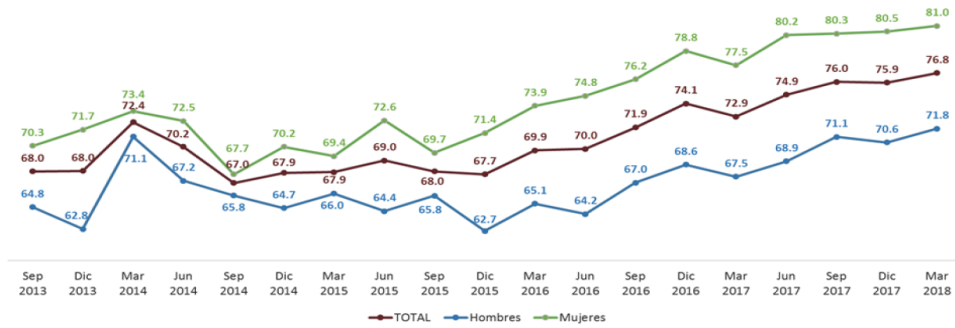
- ✓ 대통령 대학교 논문 표절: 멕시코 사립 판아메리카 대학교 법대 학사 논문 200 장 중 28.8% 상당에 대하여 표절 진행 (관련 사립대는 논문 심사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있었다는 입장 표명)
- ✓ 제도 혁명당 소속 대통령 측근들 비리: 제도 혁명당 소속으로 현 대통령으로부터 “제도 혁명당의 새로운 얼굴”이라고 표현된 베라크루스 주지사 하비에르 두아르테 (Javier Duarte)의 조직 범죄 및 뇌물 혐의로 도주 중, 과테말라에서 체포되어 멕시코로 추방. 제도 혁명당 소속으로 전 키타나 주지사 로베르토 보르헤 (Roberto Borge) 부패 및 뇌물 혐의로 파나마 공항에서 체포, 멕시코로 추방. 제도 혁명당 소속 타말울리파 전임 주지사 토마스 야링톤 (Tomas Yarrington)의 마피아와 연결되어 금품 수수 혐의로 이탈리아에서 체포. 제도 혁명당 소속으로 조직 범죄 담당 (SEIDO) 부서장 헤수스 레이나 가르시아 (Jesus Reyna)의 조직 범죄 연루 혐의 체포, etc
- ✓ 정부 기관 포함 계약 비리: 최소 11 개 정부 기관, 멕시코 국영 석유 회사 (PEMEX) 및 8 개 공립 대학교 포함 비리로서, 128 개 해당 유령 회사를 통한 계약 기반, USD \$192 백만 해당 공적 자금 횡령

## ● 증가 추세 폭력

언론 자유를 기술했던 인권 헌장 19 조 토대, 1984 년 설립된 “19 조”로 명명된 비영리 단체는 2012 년 12 월 페냐 니에토 행정부 수장 취임부터 2018 년 2 월 5 일까지 기준, 총 1,986 건에 대한 테러 및 암살이 진행되었으며, 이는 기존 마약과의 전쟁 선포로 상징되는 기존 칼데론 정부 기록을 추월하는 상황으로 매년 상승 곡선 형성 하고 있다. 국가 전체 차원 면에서는 2018 년 4 월 18 일 통계청 (INEGI) 발표 (Comunicado de prensa Num. 154/18) 기반, 2013 년 9 월부터 조사된 도시 거주 18 세 이상 성인 대상 사회 불안 관련 설문 조사에서 76.8%가 불안하다고 한 여론 조사 및 그래프 상향 움직임에서 알 수 있듯이 치안 관련 페냐 니에토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PERCEPCIÓN SOCIAL SOBRE INSEGURIDAD PÚBLICA A NIVEL NACIONAL A MARZO DE 2018



## • 인권 유린

2018 년 3 월 28 일 진행된 정부 업무 보고에서 멕시코 인권 위원회 (CNDH) 의장 곤잘레스 페레스 (Gonzalez Perez)는 2016 년 대비 2017 년에 117% 상승된 정부 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 (고문 관련 274 건, 불법 연행 5,086 건, 살인 195 건, 실종 89 건, etc) 뿐만 아니라, 여성, 인권 위원회 관계자, 언론인에 대한 폭력도 줄어들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기존 정부들에 대한 실망이 씨앗이 된 변화 열망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직접 표시되고 있는데, 통계청 발표 총 재외 국민 투표 98,854 표 중에서 64% 해당 63,863 표가 (아나야 26,344 표, 27%. 페냐 니에토 소속 제도 혁명당 메아데, 4,613 표, 5%) 차기 대통령 지지로 분류되고 있는 측면에서도 여실히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 V. 전망

전개 순서는 먼저, 로페스 오브라도르 차기 대통령 본인 공약 및 성향 대비,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을 해 볼 예정이며, 이후, 대통령 보좌를 할 것이라 예상되는 주요 장관 후보들 이력 및 접근 관련 자료 토대 (인터넷 유포 언론 기사, 책 등을 포함한 간접 저술 정보) 나름 객관성을 유지하고, 인물 관련 서술한다. 그리고, “함께 역사를 만들자” 구호 아래, 노동당 (PT), 사회 화합당 (PES) 및 모레나 연합 소속으로 차기 대통령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출마하였지만, 주 (主)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 모레나 성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끝으로, 멕시코는 한국과 동일하게 3 권 분립에 기초한 국가 구조를 띄고 있음으로, 멕시코 행정부가 추구하는 정치 철학 혹은 대선 공약에 대한 이행에 있어서 멕시코 연방 입법부 (상원 및 하원) 선거 결과 토대, 어떻게 진행될 지 여부도 예측하여 보도록 한다.

차기 대통령은 1953 년 11 월 13 일, 멕시코 남쪽 타바스코 주, 마쿠스파나 군청 지역의 테페티탄 지역에서 소규모 상업에 종사하는 부부의 장손으로 출생하였다. 지역에서 유일한 초등학교 마르코스 베세라 통학하며, 오후에는 부모님 운영 영세 상점에서 부모 일을 거들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하였으며, 19 살 멕시코 시티에서 멕시코 국립 자치대 (우남대) 정치 학부 입학 을 위하여 상경하였다.

1970 년대 중반 제도 혁명당 (PRI) 당원으로 정치 활동 시작, 타바스코 주에서 인디오 인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하였으며, 1980 년대 중반 멕시코 시티로 정치 기반을 이동하였다.

1988 년 신 자유주의 정책 도입 및 카를로스 살리나스 고르타리 대통령 입후보자에 반대하여, 제도 혁명당 탈당, “국가 민주 전선” 연합을 구성 콰우테묵 카르데나스 대통령 입후보자를 주축으로, 타바스코 주지사 직에 입후보 하였으나 낙선하였다.

국가 민주 전선 연합은 1989 년 민주 혁명당 (PRD) 으로 탈바꿈되고,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타바스코 주 당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 1991 년 타바스코 주, 제도 혁명당 승리 6 개 군청에서 불법 선거가 이루어졌다고 멕시코 시티까지 “민주주의 후퇴”구호 아래 행진, 타바스코 주지사 사임을 이끌어내는 효과를 이루었다.

1994 년 타바스코 주지사 입후보하였으나, 38.7% 득표율로 상대 제도 혁명당 후보 57.5%에게 낙선하였다. 해당 선거 결과에 항의, “**민주주의를 위한 대이동**”이라는 구호 아래, 멕시코 시티까지 데모 행진을 하였고, 국민 행동당 및 노동당의 동참, 석유 공사 사유화 반대 이슈도 정치 쟁점화함으로써, 비록, 타바스코 주지사 선거 무효화를 이끌어내지 못하였으나, **멕시코 정치 중심에 서는 중요 전환점** 역할을 하였다. 1996 년 민주 혁명당 당 대표 선출, 1997 년 전체 연방 하원 의원 500 명 중, 125 하원을 당선과 멕시코 시티 시장을 당선 시킴으로써, 명실 상부한 당 존재 부각 및 중앙 정치 핵심으로 등극하였다.

2000 년 6 년 임기 멕시코 시티 시장 선출, 2006 년 멕시코 대통령 선거 낙선 (35.29%, 상대 후보 펠리페 칼데론 35.91%), 2012 년 멕시코 대통령 선거 낙선 (31.57%, 상대 후보 페냐 니에토 38.20%)을 하였다.

전체적인 성향은 중도 좌파를 이루고 있으며, 보호 무역 주의 및 주요 제반 시설 (석유, 전기 및 가스) 사유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국제 조약등과 같은 국제화에 반대하고, 기존 정부에서 추진된 에너지 개혁, 교육 개혁, 노무 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노조 및 인권 옹호에 앞장

서고, 대기업 위시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금 증세 찬성하고 있다. 기존 정부 시절 체결된 계약에 대한 이행을 약속하고 있으나, 주요 계약 (신공항 건설, 국영 석유 공사 계약 등)에 대한 검토를 공개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앞에서 차기 대통령 개인 이력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실제로 이행 될 지 여부는 미지수 이나, 2018 년 6 월 22 일 몬테레이에서 공언(公言)한 16 명 주요 장관 후보들 (8 명 남성, 8 명 여성) 성향을 알아보고, 이후 추진될 상황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전망하여 보도록 하자.

모든 장관들이 남성들이었던 호세 로페스 포르티요 대통령 (1976 ~ 1982) 재임 기간까지 여성에 대한 정부 고위직 참여는 쉽지 않았는데, 이후, 조금씩 여성들 참여가 늘어나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 (2006 ~ 2012) 시절 7 명 여성 장관, 페냐 니에토 현 정부 시절 5 명 여성 장관은 로페스 오브라도르 공약처럼, 이행된다면, 멕시코 역사 상 제일 많은 여성 장관들 취임이라고도 기록될 것이다.

먼저, 16 명 출신을 살펴보면, 직업별로 보았을 때, 변호사 4 명, 경제학자 3 명, 공학자 2 명, 농학자 2 명, 수학자, 건축가, 의사, 정치 학자 및 호텔 경영학자로 분류된다. 학부 과정에서 보았을 때, 공립대 출신 10 명 (멕시코 국립 자치대 우남대 7 명)이고, 10 명은 대학원 이상 과정을 거쳤으며, 11 명은 외국에서 공부를 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65 세 대통령을 보좌할 장관들은 통신부 (SCT) 장관을 수행할 하비에르 히메네스 에스프리우 80 세부터 노동부 장관 (STPS)을 수행할 루이사 마리아 알칼데 30 세까지 평균 연령 62 세를 표시하고 있다. 출생 지역은 대부분이 (12 명) 멕시코 시티에 소재하고 있다.

참고로, 주요 장관 후보들만 (내무부, 외무부, 재무부 및 경제부) 검토하였고, 장관 후보 성향은 대통령 정치 철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추후 6 년간 그려질 청사진을 어렵듯이 추측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 멕시코 진출하였거나 진출 예정 대기업 및 중소기업 규모 사업체에게 사업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나름 판단한다.

-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하다 평가되는 내무부 (SG) 장관 후보 올라 산체스 코르데로 (Olga Sanchez Cordero, 71 세) 경우, 전임 연방 대법관 출신 (현재, 국민 연금 생활)으로, 인권 중시 성향 멕시코 국립 자치대 (UNAM) 법대 출신으로 (대학교마다 성향 존재. 예를 들면, 이베로 아메리카 대학교 경우, 자본주의 중시 경향 등), 1968 년 학생 운동 참여 경력과 함께, 낙태 및 동성 결혼에 대한 찬성 등 자유주의 경향 반면,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언급 관련 이슈들 및 마리화나 흡연 등에 대하여, 국민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결정하겠다는 유보적인 면에서 두 사람 모두 좌파적 성향이 있으나 후자가 더 보수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 **외무부 (SRE) 장관** 후보 헥토르 바스콘셀로스 (Hector Vasconcelos, 73 세) 경우, 유럽 지역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대사 출신으로, 미국 하버드대 국제 정치학과, 영국 캠브리지대 정치 역사 관련 석사, 옥스포드대 박사 졸업, 현재 멕시코 국립 자치대 (UNAM) 자문으로 재직 중이다. NAFTA 관련 재협상에 대한 찬성 입장이며, 현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사위 제러드 큐슈너를 통하여 진행하는 비공식 채널에 대한 비판과 함께, 다른 중남미 국가 정치에 대한 비 간섭 및 미국에 의한 멕시코 내정 간섭 배제를 주장하고 있다. 주요하게, 로페스 오브라도르 공약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 NAFTA, TPP 에 대하여 우호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국내 산업 경쟁력 양성 및 내수를 통한 자급 자족 기반으로, 미국 트럼프와 유사한 보호 무역 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 **재무부 (SHCP) 장관** 후보 카를로스 마누엘 우르수아 마시아 (Carlos Manuel Urzua Macias, 63 세)는 멕시코 몬테레이 공대 및 폴리테크니카 (IPN)대에서 각각 수학 학사 및 석사, 미국 위스콘신-메디슨 대학교 경제학 박사를 하였고, 멕시코 소재 대학교 교수 재직 중,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시장 재임 시절 (2000~ 2006), 멕시코 시티 지방 국세청장 (2000 ~ 2003)을 역임하였다. 성향은 로페스 오브라도르 경제 안정 및 투자 부분 공약에 표현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총 10 가지 경제, 사회 및 재무 관련 책을 저술하였는데, 보다 깊이 재무, 특히 세무 관련 후보가 생각하는 바를 알고자, 제일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세무 관련 2012 년 공동 저술 “*멕시코 미래를 건설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제안 (Construyendo el futuro de Mexico: Propuestas de Politicas Publicas)*”을 참조하였다.

후보는 2010 년까지 재무부 및 통계청 발표 자료 토대, 경제 협력 개발 기구 (OECD) 가입 국가들 중, 멕시코는 국내 총 생산 (GDP) 대비 세금 징수율이 현저히 낮음으로

효율적으로 높이는 방안, 멕시코 가솔린 가격이 미국, 캐나다, 독일 및 일본 등 비교, 현저히 낮음으로 정부 보조금을 줄이고 (전기세 관련 정부 보조금도 동일) 현실화 할 것을 주문 (참고로, 로페스 오브라도르 공약은 유류 가격 변동제 반대 입장)하고 있으며, 주요하게 4 가지 사항을 추진할 것을 서적에서 요구하고 있다.

**첫 번째. 현재 재무부 (SHCP) 산하 부속 관청으로 되어있는 국세청 (SAT)을 독립 기관으로 변경.** 연방 및 지방 헌법 개혁을 통하여 연방 및 지방 정부 모두 각각 독립이 보장되는 국세청을 만들고, 모든 세무 관련 시스템 통합 기구 마련하여 긴밀한 협조를 통한 세금 징수 관련 효율성 확보한다.

**두 번째. 정부 특정 수입을 정부 특정 지출에 직접 연결.**

**세 번째. 모든 법인 및 개인에 대하여 현금주의 기반 소득세 (법인세, 개인 소득세) 통일.** 2014 년 폐지된 회사 단일세 (IETU) 와 비슷한 현금주의 기반 소득세로 통일한다 (YG 참고: 2008 년 법인 경우, 발생주의 기반 소득세 (ISR)와 현금주의 기반 회사 단일세 혼합 운영으로, 세무 관련 계산 복잡화 및 법인 현금 흐름에 대한 충돌 효과 발생. 회사 단일 세는 연방 대법원에 의하여 합헌으로 판단되었으나, 현금을 많이 다루는 법인 경우, 구조적 문제점 존재. 관련 사항에 대하여 한인 대상 일간지에 필자 의견 표시).

**네 번째. 정부 지출에 대한 의무 규정 확립.** 지출에 대한 정확한 규정 토대, 멕시코 석유 관련 제반 시설 확충 및 신설과 지출 집행 관련 투명성을 주문하고 있다.

전체적인 면에서 세금 증가 (연방 차원, 자동차 보유세 부활. 참고로, 2011 년 연방세로 분류되는 자동차 보유세 폐지, 지방 정부에 자율성을 주어서 각 지방마다 상이한 자동차 보유세 징수 중, 즉, 지방세로 전환) 찬성 입장 및 세금 징수 관련 정부 기관의 효율성과 함께 정부 보조금을 교육 및 국민 건강에 보다 더 집중 할 것을 기술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시티 시장 재임 시절 지방 국세청장 (2000 ~ 2003)을 수행하며 보좌하고, 거의 20 년 정도, 동반 관계 유지한 점에서 측근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멕시코 재무 관련 시각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경제부 (SE) 장관** 후보 마르케스 콜린 (Marquez Colin. 63 세)은 멕시코 국립 자치대 (UNAM) 경제 학부 졸업, 콜레히오 데 멕시코 대학교 경제학 석사, 미국 하버드대 경제 역사 관련 박사 졸업하였다. 경력 대부분은 대학교 교수 생활을 하였으며, 주요 저술로는 국제 무역, 세금의 사회학, 경제 지표에 대한 추정 및 계산, 비교 경제 역사에 집중되고 있다. NAFTA 관련 입장은 재협상에 있어서 장기적 안목을 갖고 충분한 시간 토대, 쌍방 윈윈한다는 목표로 느긋하게 협상한다는 모범적 (교과서적)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저술 대부분이 신 자유주의 모델을 비판하고 있으며, 정치 경제 연관 공식 경험인 전무한 학자가 제일 중요한 국제 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NAFTA 재협상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모든 멕시코 국내외 언론은 궁금해 하고 있다.

참고로, 후보로 선정된 재무부 장관 및 경제부 장관 경우, 로페스 오브라도르 반골절인 성향 혹은 좌익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베네수엘라처럼 멕시코도 정치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멕시코 투자 외국 자본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선택되지 않았을까 외국 투자 자본들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앞에서 장관 후보들을 통하여, 차기 여당이 생각하는 멕시코 6 개년 전반적 청사진을 간접적으로 보았다면, 이제는 차기 대통령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속한 주 (主) 정당 모레나 성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모레나 정당은 2012 년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 입후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1 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 2014 년 7 월 정당으로 중앙 선관위 (INE)에 등록되었다. 모레나는 출발부터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로페스 오브라도르에 의한, 로페스 오브라도르 위한** 정당으로서, 모든 면에서 차기 대통령 정치 철학이 함축되어있으므로, 이후 소개될 모레나 정치 개혁안 (프로그램)을 검토한다면, 개봉 박두 예정 좌파 정부가 멕시코 연방 행정부를 최초로 장악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역사 속 현장 관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018 년 7 월 1 일 선거 이전, 로페스 오브라도르 제외, 멕시코 전체 차원에서, 연방 상원 의원 0 명, 연방 하원 의원 47 명 (전체 대비 9.4%), 주 지사 0 명으로 정당 존재감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선거 이후, 연방 상원 및 하원에서 과반을 차지하는 정당으로 탈바꿈하였다.

모레나 배포 자료 (<http://lopezobrador.org.mx>) 토대, “**멕시코의 희망**” 슬로건으로 사회민주주의 및 진보를 표방하고 있으며, 신 자유주의를 비판, 전체적으로 좌파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참고로, 6.25 경험에 있는 한국은, 정치꾼들 및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주요 언론 매체에 의하여 좌파는 무조건 빨갱이, 잘못된 것이라는 그릇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재외국민 포함 한국 사람들이 아직도 일부 존재하는데, 좌파 및 우파에 대한 정확한 유래를 알아보도록 추천 드린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진보 (좌파) 및 보수 (우파) 모두 장단점을 보유하고 있다. 누군가 이야기 하듯, 새는 좌우 균형을 통하여 하늘을 난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 입후보자 지원하며, 정당적 차원에서 10 가지 프로그램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1. **비판적 연대적 생각과 의식 개혁.** 일부 정치꾼에 의한 정치 보다는 모든 국민 연대 및 참여를 통하여, 부패를 척결하고 물질적 충족보다는 모든 사람들의 복지를 통한 행복 추구를 목표로 한다.
2. **공화국이 뜻하는 도덕 추구 및 부패 척결.** 고임금의 고위 공직자들이 특권을 가지고 남용하는 국민 세금 및 부패 방지하고, 관료주의 팽배한 사회를 국민들이 실질 주인이라는 공화국이 뜻하는 실제 정의를 이룰 수 있도록 실천한다.
3. **국가 및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 추구 및 권위주의 반대.** 국가가 일부 소수 권력층에 의하여 자신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 분개하며, 연방 헌법에서 명시하는 국가 권력은 국가 및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국가 주권 및 독립을 수호하고 매국 행위에 대한 반대.** 연방 헌법에서도 기술되어있듯이 멕시코는 외세 간섭에 대하여 반대하고,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 속한다는 정체성 회복과 국영 석유 회사 (PEMEX), 전기 산업, 천연 자원 및 문화 유적에 대한 외국 자본 참여에 의한 사유화를 반대한다.
5. **다문화 지향 국가 및 토착 원주민에 대한 존중.** 세계에서 멕시코는 문화 및 생물 다양성에 있어서 몇 안 되는 국가에 포함되며, 천년 유산이라고 표현 할 수 있는 다양성은 원주민

마을에 있다고 하더라도 과언은 아니다. 현재 해당 다양성은 위협받고 있는데, 토착 원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 추구한다.

6. **언론에 대한 민주화.** 현재 멕시코는 소수 독재 집단에 의하여 언론이 조작되고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면, 텔레비사 및 TV 아스테카는 전체 TV 대비 90%를 장악하고 있으며, 전체 80% 해당 라디오 방송은 9 개 그룹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극소수에 의한 언론 장악은 특정 세력을 위한 정보 조작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하여, 라디오 및 방송에 대한 민주주의 확립,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 인터넷이 모든 지역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전력 추구한다.
7. **새로운 경제 모델 확립.** 세계 경제 위기 토대, 신 자유주의는 국민 복지 실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세계 경제 기구는 내정 간섭을 통하여 멕시코 경제 상황을 더욱 더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실 상황 토대, 멕시코는 내수 산업을 양성하여 자급 자족 추구하고 연방 헌법 28 조에서 금지하는 독점 존재 여부 감시하고, 가격 안정을 추구한다. 현재 영세 사업자 및 노무자들로부터 많은 세금이 나오고, 대기업 및 부자들은 세무 혜택을 통하여 극소 액의 세금만 납부하는 불평등 상황을 해소할 것이다.
8. **교육 및 노동 관련 권한 확장과 불평등 반대.** 모든 국민들은 무상 공립 교육에 대한 권한이 있다. 또한, 모든 노무자들은 정당한 노동에 비례하는 합당한 임금을 받아야만 한다는 점에서 노무 개혁에 대하여 반대하고, 노약자, 원주민, 여자, 청년 및 장애인에 대한 권한이 보장되는 사회를 추구한다.
9. **폭력에 대한 반대 및 인권 존중 사회.** 기존 여당들에서 “마피아 근절”이라는 미명하에 국민들 상대 자행된 폭력에 대하여 반대한다. 멕시코 주재 이민자 포함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추구한다.
10. **농산물 및 농토 관련 주권 회복, 천연 자원 착취 반대.** 멕시코는 현재 주요 농산물의 40%를 수입하고 있으며, 다국적 농업 기업들의 위협을 받고 있다 (유전자 조작 작물 반대). 이에 모레나는 중소 영농 가구 지원을 통한 가구 수 확대, 자급 자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재생 경제 모델을 통하여, 계속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비계획 및 불법으로 남용된 광산 허가는 환경 파괴 대비 낮은 세수 현실을 인식하고, 재고하도록 한다.

1997 년부터 보았을 때, 대통령 소속 집권 여당이 연방 상원 및 하원 과반을 차지한 역사가 없는 시점에서, 2018 년 7 월 1 일 선거를 통하여, 로페스 오브라도르 차기 행정부 수장은 연방 입법부 행정부를 장악함과 동시에 멕시코 전체 지역 주지사 및 주의회도 과반 장악함으로서, 다른 어느 대통령에 비교하여, 자신이 추구하는 국정 철학을 멕시코 전 지역에 걸쳐 유감없이 발휘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어느때보다, 대통령 본인 및 주요 장관 후보들 이력 및 모레나 정당의 공약에 대하여 유심히 살펴봄으로서, 독자들 각 각 차기 6 년 멕시코 경제 전망을 하고 대비하여야만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이력들 및 공약 토대, 로페스 오브라 승리에 대하여 우려 및 기대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존재한다.

먼저 우려하는 측은 세계적 신용 평가 회사 Fitch 측으로, 전반적인 로페스 오브라도르 성향이 보호 무역 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제 조약에 대하여 선호하지 않는 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 불안으로 인한, 외국 자본 유출, 경제 악화가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반대로, 글로벌 투자 은행 JP Morgan, 스페인 다국적 금융 그룹 BBVA 측으로 대표되는 그룹은 로페스 오브라도르 승리에 장밋빛 경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주요 이유로서,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기나긴 대통령 준비 기간, 6 년 멕시코 시티 재임 기간 부채가 52% 증가하긴 하였으나, 국내 총 생산도 63%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적폐 세력으로 공공연히 지적한 대기업 Televisa, America Movil, Grupo Mexico, Penoles, OHL 등은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며, 멕시코 국내 기업 Bachoco, Lala, CEMEX 등은 국내 산업 양성으로 인한 혜택을 입지 않을까 진단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약화된 페소는 로페스 오브라도르 선거 승리 예측이 90% 이상이 된다는 예측이 보도되는 6 월 중순부터 점차 감소, 2018 년 7 월 3 일 1 달러 당 MX \$19.83 에서 점차 하락 지세를 나타내며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대통령 공식 취임이 시작되는 12 월 1 일까지 별다른 이상 없는 한, 2018 년 초 MX \$19.00 선을 유지하지 않을까 예측해 본다 (참고로, 차기 재무부 장관은 변동 환율제 유지 공포).



OECD 발표 2017 년 말 기준, 멕시코 국가 부채는 국내 총생산 대비 47.4% (멕시코 재무부 발표 토대, 2012 년 33.8%, 2013 년 36.5%, 2014 년 39.8%, 2015 년 44%, 2016 년 48.2%, 2018 년 5 월까지 44.2%)를 형성하며, 캐나다 (97%), 미국 (105%) 대비 현저히 높은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측면과 멕시코 중앙 은행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공약에서 보았을 때, 베네수엘라와 같은 대책 없는 무차별적 퍼주기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며, 대형 계약에서 많이 발생하는 기존 부조리 철폐를 통한 법적 안정을 이룬다면, 외국 자본 이탈은 발생하지 않으리라 예상한다.

다만, 우려할 점이라면, NAFTA 일방 중단이 아닌 협상 테이블에는 앉겠다는 상황에서, 로페스 오브라도르 개인, 내각 장관들 성향 및 소속 주 정당 (모레나) 성향이 보호 무역 주의 지향하고, 국내 산업 육성을 통한 자급 자족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에는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통념이라고 할 수 있다.

**BALANZA COMERCIAL DE MERCANCÍAS DE MÉXICO**  
(Millones de dólares)

Concepto	2016	2017				2018
		Oct	Nov	Dic	Anual	Ene*
<b>Exportaciones Totales</b>	<b>373,939</b>	<b>36,901</b>	<b>37,480</b>	<b>35,825</b>	<b>409,494</b>	<b>30,730</b>
Petroleras	18,818	2,251	2,451	2,657	23,608	2,327
No Petroleras	355,122	34,650	35,029	33,168	385,886	28,403
<b>Importaciones Totales</b>	<b>387,064</b>	<b>38,967</b>	<b>37,081</b>	<b>35,982</b>	<b>420,369</b>	<b>35,138</b>
Petroleras	31,566	4,082	3,977	4,388	42,010	3,875
No Petroleras	355,499	34,885	33,104	31,593	378,359	31,264
<b>Balanza Comercial Total</b>	<b>(-) 13,125</b>	<b>(-) 2,066</b>	<b>399</b>	<b>(-) 157</b>	<b>(-) 10,875</b>	<b>(-) 4,408</b>
Petrolera	(-) 12,748	(-) 1,831	(-) 1,525	(-) 1,731	(-) 18,402	(-) 1,548
No Petrolera	(-) 377	(-) 235	1,925	1,574	7,527	(-) 2,861

NAFTA 관련 상기 입장 토대, 2018 년 2 월 통계청 (INEGI) 발표를 본다면, 2014 년 후반기부터 계속하여 무역 수지 적자를 이루는 경제 상황에서 2017 년 기준, 국제 무역 수지 적자 USD \$10,875 백만, 그나마, 비 석유 관련 흑자 USD \$7,527 백만을 기록하고 있으나, 비 석유 관련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 본다면, 2018 년 1 월 기준 80.43% (자동차 25.17%, 기타 55.26%)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기타 국가 수출 물량은 19.57% (자동차 5.39%, 기타 14.18%) 정도로, 미국 의존성이 상당히 강하다고 할 수 있다.

**EXPORTACIONES NO PETROLERAS A DISTINTOS MERCADOS**

Concepto	Estructura % Enero 2018*	Variación porcentual anual				
		2017				2018
		Oct	Nov	Dic	Anual	Ene*
<b>Total</b>	<b>100.00</b>	<b>13.0</b>	<b>7.3</b>	<b>5.7</b>	<b>8.7</b>	<b>11.6</b>
<b>Estados Unidos</b>	<b>80.43</b>	<b>11.1</b>	<b>5.7</b>	<b>2.8</b>	<b>7.2</b>	<b>10.1</b>
Automotriz	25.17	12.3	8.4	5.1	8.8	5.3
Otras	55.26	10.4	4.4	1.7	6.4	12.5
<b>Resto del Mundo</b>	<b>19.57</b>	<b>22.2</b>	<b>14.9</b>	<b>19.6</b>	<b>15.8</b>	<b>18.5</b>
Automotriz	5.39	61.3	27.1	31.1	29.2	30.7
Otras	14.18	9.8	9.2	15.0	10.9	14.4

\* Cifras oportunas.

또한, 비 석유 분야, 수출 물량의 30% 이상이 자동차 관련으로 해당 산업들은 대부분 국경 부근 마킬라 형성하고, NAFTA 관련 관세 등 세무상 혜택을 받고 있는 산업체들인 상황에서 NAFTA 탈퇴등과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는 멕시코 경제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리라 판단한다. 다만, 이러한 부정적 효과를 대선 공약 기준, 현 부가가치세 16%를 8% 인하하며, 다소 상계 시키려는 조그마한 노력도 있지만 이러한 유인 요소가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는 실질적인 회계

세무 손익 계산을 해보아야만 할 것이다 (사족: 멕시코 달러 유입은 일순위로 자동차 수출, 이순위는 미국 주재 이민 노동자들로부터 멕시코 소재 가족들에게 보내지는 해외 자금 이체라고 할 수 있다. 멕시코 중앙 은행 (Banco de Mexico) 발표에 의하면, 2018 년 5 월 트럼프 반 이민 정치 영향 추측, 역사상 제일 많은 USD \$3,096 백만불 기록하였다 (2017 년 동월 대비 19% 상승)).

NAFTA 협상 관련 로페스 오브라도로 행정부 멕시코 대표로 확실히 되는 예수스 메아데 (Jesus Meade) 경우, 멕시코 국립 자치대 우남대 화학과 출신으로 영국 옥스퍼드 경제 박사 이후, 세계 은행 경제 전문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GATT) 멕시코 대표, 국제 통화 기금 (IMF) 자문, 홍콩에서 교수 및 국제 문제 관련 단체 부의장으로서, 1997 년 아시아 금융 위기 당시, IMF 자문 역할을 할 정도로, 아시아 관련 높은 이해 및 국제 문제 관련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국제 경제 관련 전문가 출신으로 간접적으로 보호 무역 주의 지향하는 로페스 오브라도르 행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 받고 있다.

석유 관련 상황을 본다면, 더욱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데, 2017 년 말 석유 관련 무역 적자 USD \$18,402 백만 상황에서, 75% 해당 가솔린을 미국 위주로 수입하는 의존성이 더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국영 석유 회사 (PEMEX) 6 개 정유 시설의 낙후화 및 비효율성 (47%. 2017 년 9 월 7 일 지진으로 인한 오아하카 지역 살리나 크루스 정유 시설 두 달 반 운영 정지)이 제일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러한 면에서 로페스 오브라도르에 의한 추가 정유 공장 신설 및 제반 시설 현대화가, 현재 국제 원유 시장에서 원유 가격이 점차 상승세를 유지하는 시점에서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언급된 NAFTA 뿐만 아니라, 대선 기간 중 수 차례 언급되고 있는 에너지 개혁 관련 기존 계약서에 대한 재검토 및 멕시코 신 공항 필요 여부에 대한 재검토 천명은 멕시코 투자자들 입장에서 정권에 따라 춤을 추는 법적 불안정 요소로서 한 몫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페냐 니에토 제도 혁명당 (PRI) 행정부에 의하여 2013 년 연방 헌법 27 조 개혁을 통한 2014 년 에너지 개혁 기반, 2018 년 7 월 입찰 관련 라운드 3.2 가 진행되는 현재 상황에서 20 개국 (미국, 영국,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중국, 캐나다, 스페인, 러시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일본, etc) 73 개 업체 참여, 107 개 국제 계약이 되었는데, 이는 에너지부 장관 페드로 호아킨

콜드웰에 의하면, USD \$160,000 백만 투자 효과 및 900,000 명에 해당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2018 년말까지 공개 입찰 두개가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 확정 후, 연방 헌법 (CPEUM) 토대, 기존 계약 철회 권한을 소유한 석유 화학 위원회 (CNH) 위원장 후안 카를로스 세페다는 현 정부 산하 집행된 석유 관련 계약은 투명성 및 합법성에 의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에 대선 공약에서 기술한 재검토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는 없다고 표명하고 있다.

멕시코 신공항 경우, 정부측 발표 (<https://datos.gob.mx/contratacionesabiertas/contratos/>)에 의하면, 366 개 업체 참여, 422 개 계약 진행 (88% 공개 입찰), 총 금액 MX \$149,279 백만 (USD \$7,464 백만)에 해당하는 대공사로서, 계약의 상당 부분이 진행되고 공사 시작된 상태에서 신공항 필요 여부를 다시 재검토 하겠다는 공약은 카를로스 슬림을 비롯한 많은 재계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사족: 멕시코 통신 재벌로서, 한때 세계 1 위 카를로스 슬림 비판에 대하여, 로페스 오브라도르 왈 “그렇게 하고 싶으면 너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냥 해라”).

또한, 상기 서술된 국제 상황뿐만 아니라, 대선 관련 공약 토대, 국내 상황을 돌아본다면, 2020 년 세무 개혁을 통하여, 소득세 관련 재개편을 통한 세금 증세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확실시 된다. 이러한 재원 바탕, 청년 배당 및 노인에 대한 복지에 지출하려는 노력이 있을 것이라 짐작되는데, 많은 비판을 받고 있기는 하나, 정부 수입은 처음에는 세율 상승 비례 증가하다가 세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세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정부 수입은 오히려 감소하는 래퍼 곡선 논리 (대기업 경우, 다른 국가로의 이동, 소규모 사업체 경우, 비합법적으로 거래되는 음성 시장으로의 유입 증가)도 있으니, 차기 정부가 어떻게 풀어갈지도 지켜보아야만 할 것이다.

멕시코 역사상 좌파 성향 정부가 연방 행정부 수장이 된 것은 1934 년 실제 경작 농민들에게 토지 분배를 한 농지 개혁 추진 라사로 카르네나스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추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후 추진될 정책 및 법안에 있어서 멕시코 소재 한인 사업체에 있을 파급력이 많은 이슈 경우, 관련 법 회계 세무적 전문 의견을 나를 객관적으로, 기존과 같이 지면을 통하여 의견 개진하고자 한다.

현 문서는 멕시코 한인 대상 주간지 기사 종료 후, YG Consulting 홈페이지 ([www.ygconsulting.net](http://www.ygconsulting.net)) 게재 한다.